

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해외 노동자 송금이 많은 나라에서 달러 기반

스테이블코인(USDT, USDC 등)을 통해 송금·결제·급여·자산보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

주요 국가별 현황 및 스테이블코인 수요(2025)

국가/지역	특징	스테이블코인 활용 및 수요 내용
베네수엘라	초인플레이션, 통화가치 급락	- USDT 등 스테이블코인 직접 결제(식료품, 임대료, 급여, 서비스 지급) - 송금/저축 및 일상경제 결제 대체 통화로 폭넓게 활용
아르헨티나	연 150% 내외 초고인플레이션	- 기업·개인 모두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, 해외송금, 보호자산 운용 - "디지털 달러"로 환전/자산회피 수단 선호
나이지리아	환율 불안, 해외송금 대국	- 해외 노동자 송금의 30%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경유 - 은행 없는 이용자도 모바일지갑으로 송금/금융 서비스 활용
필리핀	해외노동자 송금 의존	- 해외 송금 주요 결제수단, 저비용 실시간 송금 플랫폼 도입 확산 - 금융소외층의 디지털지갑 기반 자산보호/결제
브라질	인플레이션, 해외송금	- 스테이블코인 직접 수령·저장, 중소기업 크로스보더 결제 선호 증가
튀르키예	높은 인플레이션, 환율 급변	- 개인·기업이 USDT, USDC 로 급여, 장보기, 온라인쇼핑 결제 활용 -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 세계 최상위권
러시아, 중국	자본통제, SWIFT 규제 대응	- 대외거래·무역결제 등에서 블록체인·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 - 안전자산/금융제재 우회 목적

인도, 남아공 등 신흥국	금융접근성 낮음, 송금비용 높음	- 스테이블코인 이용 시 수수료 1~3%로 현저히 저렴 - 중소기업·개인의 결제·저축·송금·보험 등 디지털금융 확산
북한	광범위한 금융제재, 국제 SWIFT 차단	암호화폐로 외화 유입 및 제재 회피, 블록체인 기반 국경 송금(불법적 사용 포함)
이란	미국·EU 등 제재, 오피셜 페그 차단	대외 무역결제(원유·중간재 등), 국경 간 결제, 자산 도피 수단 활용 시도
벨라루스 등 기타 제재국	자국통화 불신, 송금·무역 제재 대상	USDT/USDC 등으로 재화·서비스 교환, 대외무역 대금 결제

활용 유형 요약

- 급여 및 개인 자산 보존(초인플레이션 국가)
- 해외 노동자 송금(저비용, 실시간)
- 실물 결제(쇼핑, 렌트, 서비스비 등)
- 금융소외층의 저축, 지급 기반 금융 인프라

이처럼 각국은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, 송금·금융 인프라 미비, 자본통제, 글로벌 외환제재 등 다양한 배경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